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순항'

채용 비율 2016년 10.09%서 올 1분기 15.39% 올라
한국전파진흥원 50%, 콘텐츠진흥원 43%, 전력거래소 30%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공기업(비공시 대상 3곳 제외)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지난해 기준 15.38%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 빛가람혁신도시 12개 기관은 정규직 신입직원 2004명을 채용하면서 지역인재를 277.75명 채용해 13.85% 비중을 보였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6년 2148.75명 중 217명으로 10.0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670명 중 410.75명을 채용하면서 15.38%까지 지역인재 비율을 끌어올렸다.

올해 1분기 역시 1295.5명 중 199.5명을 채용해 15.39%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신입직원 공채가 예정돼 있고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도 이뤄지고 있어 그 비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살펴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6년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39명 중 7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고, 지난해 42명 중 14명, 올해 1분기 8명 중 4명으로 그 비율이 17.94%→33.33%→50% 순으로 증가했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가장 많이 끌어 올린 기관으로 꼽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2016년 42명 중 3명(7.14%)에서 지난해 24명 중 3명으로

12.5%까지 채용비율이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는 7명 중 3명을 채용하면서 42.85%까지 올라 2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역시 2016년 18.5명 중 2명(13.51%)에서 지난해 20명 중 4.5명(22.5%), 올해 27명 중 8명(29.62%)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화'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39명 중 6명(15.38%)에서 올해 8명 중 2명을 채용해 2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지난해 499명 중 57.25명(11.47%)에서 올해초 42명 중 10명(23.8%)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화에 맞춰 상당부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한전KPS(주)는 지난해 284명의 신입직원 중 56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해 19.71%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371명 중 50명으로 13.47%를 기록해 오히려 비율이 떨어진

상태로, 지난해 1574명 중 245명(15.56%)을 채용했던 한국전력공사 역시 올해 1분기까지 715명 중 98명으로 13.7%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맞추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빛가람혁신도시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이후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18% 수준을 맞추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올해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늘려 2022년에는 30%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우수 아이디어 포상·향후 활동 계획 공유

고객정책자문단 간담회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지난 23일 고객정책자문단과 함께하는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학연금공단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과 상반기 활동성과, 향후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학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연금제도 운영과 정책결정

에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구성된 고객정책자문단은 서비스 개선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참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훈 이사장은 "고객정책자문단의 소중한 의견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반영되고 있다"며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금서비스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준공

전남도농업기술원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24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은 시설농가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로 저장·공급, EMS(에너지 관리 시스템)로 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 미래형 온실이다.

이번 실증단지는 한전과 전남도가 연구자금을 공동 투자해 농업기술원 부지 3300㎡에 에너지 사용 재배연구를 위한 첨단 유리온실 1동(1360㎡), 버섯연구동 1동(568㎡), 신재생설비(1000㎡)를 구

축했으며, 태양광과 ESS가 결합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으로는 국내 최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작물별로 온실에서 사용되는 냉난방 에너지의 최적 공급 모델을 찾아내고, 전남농업기술원은 온실 및 버섯재배사 내부에서 최신 재배시설을 활용해 작물재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저감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종환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20%를 농업분야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의 전국 확산은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KDN 김장현·남성우 상임이사 선임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장현(61) ICT사업본부장과 남성우(57) 발전보안사업본부장을 상임이사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장현(61) 신임 상임이사는 중앙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2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뒤 전력IT추진처 정보기획팀장, IT개발실장, ICT인프라처장 등을 역임했다.

남성우 신임 상임이사는 고려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KAIST) 경영정보학과 석사를 받았으며 지난 1996년 한전KDN에 입사, 전력



김장현 이사 남성우 이사

IT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전력IT기획팀장, 전력IT사업처장, E-ICT보안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차세대 글로벌 ICT 인재 양성 APIGA 전남대서 열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지난 23일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차세대 글로벌 ICT 인재 양성을 위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APIGA)를 개막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터넷거버넌스 주요 이슈 ▲아태 지역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인터넷 보안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총 20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회의의 실천 감각 체득을 위해 그룹토론 및 모의 국제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태 지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호주 등 16개국의 만 18세 부터 35세까지의 청년 34명(한국14명·해외20명)이 교육에 참가하며, KISA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국내 참가자에 대해 하반기 열리는 '제63차 ICANN 정례회의'(스페인)와 '2018년 UN 인터넷거버넌스포럼'(프랑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제남 KISA 인터넷거버넌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 인터넷 체계와 질서 논의를 주도할 차세대 ICT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년해외개척단(AFLO-아프로) 3기 단원들이 성과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at 제공>

현지 바이어 밀착 세일즈 김치·음료 등 수출 45% 늘어

aT, 청년해외개척단 3기 성과발표회

수료 단원 취업·창업 강화 'After-AFLO'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청년해외개척단(AFLO-아프로) 3기 성과발표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aT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브라질, 폴란드, 남아공 등 시장다변화 거점거리에 청년해외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선도기업과 매칭해 각 다변화 대상국에 파견된 단원들의 팀워크를 비롯한 업체와 단원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수의 수출 성공사례 등이 발표됐다.

실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한 김영근 청년단원은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차례 밀착 세일즈를 펼쳐 국내 수출기업의 김치, 음료 등 수출이 전년 대비 45% 늘어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김씨는 해당 업체에 취업해 남아공 주재원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aT는 청년해외개척단 단원들이 활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수료 단원들을 중심으로 3주간 취업·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After-AFLO'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프로 단원들이 해외 파견을 통해 체득한 실무역량을 농식품 수출입현장에서 발휘하고, 농식품 수출업계에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기본소양을 강화하겠다는 게 aT의 목표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청년개척단의 열정적인 몸짓을 통해 우리 농식품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보탤 수 있는데 우리 농식품 업계의 미래가 밝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농식품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